

# 강진군, 먹거리 지원부터 복지 위기 점검까지 ‘OK’

강진군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 7일부터 그냥드림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그냥드림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군민에게 별도의 증빙없이 식료품과 생필품을 우선 지원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처음 방문하면 간단한 이용신청서를 작성한 뒤 별도의 증빙 없이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재방문자에게는 기본상담을 진행하고 상담과정에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되면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지원 물품은 1인당 2만원 상당의 즉석밥과 라면, 통조림 등 3~5개 품목으로 구성해 월평균 약 250명에게 지원한다. 주소지 관할 사업장이 이용이 원칙이지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우선 지원한다.

사업은 강진군기초푸드뱅크가 맡아 11개 읍면사무소에 마련된 전용 공간에서 매주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강진군은 물품 지원과 상담을 병행해 기존 복지제도에서 발견되지 않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창구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군민들이 최소한의 먹거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계획이다.

식료품과 생필품 지원뿐 아니라 상담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도 연계할 예정이다. 특히 별도의 증빙 없이 물품을 지원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군민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전운재 기자



강진군이 7일부터 그냥드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무안군,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무안군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지난 4일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무안군민 모두의 성평등, 더 넓게 더 깊게’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산 무안군수와 기관·사회단체장, 여성단체 회원, 군민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여성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에 앞장선 유공자 9명과 평등부부 2쌍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양성평등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구호 제창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가수 박지현이 감사로 나서 ‘최고의 스펙은 사랑입니다’를 주제로 노래와 강연을 펼치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양성평등 사회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무안군은 다양한 기념행사와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서용운 기자

## 목포, 무인수상정 자율운항산업 거점 구축 ‘맞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시장 강성휘)가 무인수상정 자율운항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방 무인체계 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례시, 한화시스템, 유일조선해양과 손을 맞잡았다.

목포시는 지난 3일 4개 기관과 「무인수상정 자율운항산업 거점 구축 및 국방 무인체계 고도화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남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수상정 해상시험·실증 기반 구축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목포시는 무인수상정과 자율운항선박 연구 및 건조를 위한 육상 인프라 구축과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고, 무인선박·자율운항 분야 R&D 사업 추진 시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및 시험평가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협약기관들은 해상시험·실증과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무인수상정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박성태 기자

## 함평군, ‘찾아가는 경계설명회’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소통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례시 함평군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해보면 해보산내지구와 나산면 월봉·초포지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경계설명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함평군은 6일 “지난달 4일부터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마을회관에서 실시한 ‘찾아가는 경계설명회’를 지난 4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이번 찾아가는 경계설명회는 군청 지적재조사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추진단이 대상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1:1 면담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정밀 측량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드론영상을 활용해 토지간 불일치한 경계에 대해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소통하였으며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자신의 땅 모양을 확인하고 경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높은 관심과 신뢰를 쌓는 시간이 되었다.

/이문수 기자

## 신안군,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추진

신안군(군수 김태성)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주간(9월 첫째 주)을 맞아 지역 주민의 혈관 건강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한 ‘자기혈관 숫자알기-레드서클 캠페인’을 9월 한 달간 추진한다. ‘레드서클’은 건강한 혈관을 상징하며, ‘자기혈관 숫자알기’는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주민들이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정확히 알고, 젊은 연령대부터 꾸준히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안군은 지난 3일 압해읍 신안군민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신안군 이장연합회 한마음대회’와 4일 자은면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26년 신안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연계해 레드서클존을 운영했다.

/박성태 기자

## 영암군, “금연 결심했어요” SNS 인증하면 스케일링 무료

영암군이 9월 한 달간 금연을 결심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인증한 주민에게 무료 스케일링 이용권을 제공한다.

영암군보건소는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해 9월 한 달간 ‘노담 시작’ 금연클리닉 집중 홍보와 함께 ‘금연 결심한 날’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본인의 SNS에 금연 다짐을 올리고 #영암군보건소 #오늘부터금연 #노담시작 #금연결심한날을 해시태그한 뒤 금연클리닉에서 상담을 받으면 무료 스케일링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이용권을 받은 주민은 사전 전화 예약 후 영암군보건소에서 무료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영암군 금연클리닉은 연중 운영한다. 영암군보건소 금연상담실과 삼호보건지소에서 금연 상담과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보조제 등을 제공하고 등록부터 6개월 금연 성공까지 상담과 관리를 이어간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학생을 위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필요 시 금연캠프와 연계해 지원한다.

/김기철 기자

